

2005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 머리말 -

지금까지의 공직사회 변화는 세계일류 정부의 기준에서 볼 때 늦다. 지금의 정부경쟁력 36위로는 안되며 최소 세계 10위에 들어가야 한다. 행자부는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혁신모델을 세우고 이를 적극 확산해 다른 부처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는 기술·경영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성공사례를 매뉴얼로 만들고 기존의 매뉴얼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기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지방분권이 빠르다 늦다. 제대로 된다, 안된다 하는 분권의 속도와 수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시민과 행정차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권한이양을 유형별로 분석·평가해 넘길 것과 안 넘길 것을 구분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분권정신에) 맞지 않다. 포괄적 통제제도는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하고, (대신) 국민이 알기 쉽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분권의) 권한 부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시민적 통제, 사법적 통제와 재정

적 자원배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방세에서 광역·기초 지자체 상호 간 불평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산업을 육성해 재원을 발굴한 경우 스스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업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폭력 등에 구조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이 수사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게 교육·연수 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재난관리매뉴얼 등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을 서둘러 갖추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물질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 우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정부가) 점차 부채를 상환하는 BTL 방법도 있을 것이다.